**A Star Through Time(시간을 관통하는 별):
제니스, 몰입형 전시회 <LE MONDE ETOILÉ(르 몽드 에뚜왈레)>를 싱가포르에 선보이다**

**2019년은 제니스에게 있어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. 제니스의 아이콘인 El Primero(엘 프리메로) 크로노그래프 50주년 기념행사가 1년 내내 진행될 뿐 아니라, 제니스 공방에서 몰입형 체험을 통해 제니스와 스위스 시계공학의 역사를 소개하는 <LE MONDE ETOILÉ(르 몽드 에뚜왈레)>의 1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. 이제, <A Star Through Time(시간을 관통하는 별)>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팝업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은 전례 없이 인터액티브한 방식으로 제니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.**

스위스 시계공학의 본산지를 방문하여 최고의 시계 공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, <LE MONDE ETOILÉ(르 몽드 에뚜왈레)>의 시노그라퍼들은 2018년 뉴사텔 관광공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제공하는 전시회를 고안한 바 있다. 방문객들이 본격 시계공방 내부의 작업들을 살펴볼 수 있는 360° 체험을 만들어낸 것이다. 이곳에 전시된,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진귀한 시계들을 통해 방문객들은 El Primero(엘 프리메로) 칼리버의 과거, 현재,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. 첨단 시청각 프리젠테이션 기술을 사용한 인터액티브 디스플레이는 시간을 관통하는 잊을 수 없는 감각 여행을 창조한다.

8월 28일에서 9월 1일까지 격조 높은 오차드로드에 위치한 니안시티 시빅 플라자에서 개최되는 <A Star Through Time(시간을 관통하는 별)>은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전세계 순회 전시를 시작한다. 2020년에도 여러 곳에서 전시가 계획되어 있다.제니스의 줄리엥 토나르 제니스 최고경영자는 “싱가포르는 언제나 시계공학에 대한 제니스의 전향적인 접근방식을 포용해 왔습니다. 싱가포르 부티크 개장에 앞서 <LE MONDE ETOILÉ(르 몽드 에뚜왈레)>를 개최함으로써, 우리는 제니스의 과거, 현재, 미래를 너무도 창조적인 방식으로 발견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”라는 말로 8월 29일의 전시회 개막 기자회견을 열었다. 이 기자회견장에는 기자들과 인플루언서들뿐 아니라 얀 엔겔 뉴샤텔 관광공사 소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.

<LE MONDE ETOILÉ(르 몽드 에뚜왈레)>는 또한 제니스의 영웅에 대한 헌사이기도 하다. 제니스 공방의 다락에 El Primero(엘 프리메로) 제작에 필요한 공구를 숨긴 시계 장인 샤를 베르모의 반항적이고도 용감한 행위가 이 탁월한 칼리버가 명맥을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준다. 방문객들은 3D로 재현한 비밀의 다락방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고, 3D 디스플레이와 소품을 사용하여 인터액티브 포토를 만들어볼 수 있다.

<A Star Through Time(시간을 관통하는 별)>에서 방문객들은 시계 클리닉과 시계제조 공방 체험에서 패널 토론과 특별 게스트와 함께 하는 해피 아워에 이르기까지, 다양한 이벤트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. 또한 오픈 컨셉 워치 바에서는 제니스 컬렉션의 다양한 시계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다.

<A Star Through Time(시간을 관통하는 별)>의 관람객들은 이렇게 광범위한 체험 활동, 몰입형 전시회 및 인터액티브 디스플레이를 통해, 전무후무한 제니스의 역사에 깊이 들어가 별이 반짝이는 밝은 미래를 잠시 엿볼 수 있을 것이다.

**제니스: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**

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독보적인 자체 개발 및 제작 무브먼트를 장착한다. 하나의 덩어리를 깎아서 만든 오실레이터가 탁월한 정확도를 자랑하는 DEFY Inventor(데피 인벤터), 100분의 1초 단위 측정 고주파수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한 DEFY El Primero 21(데피 엘 프리메로 21) 등이 좋은 예이다. 1865년 창사 이래 제니스는 항공의 초창기에 선보인 “파일럿 워치”와 사상 최초로 양산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“엘 프리메로”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, 정확도와 혁신의 개념을 끊임없이 경신해 왔다.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는 제니스는 성능의 새로운 기준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으로 독보적인 전설의 새 장을 쓰고 있다. 제니스는 시간 자체에 도전장을 내고 별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대담한 이들과 함께,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며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.